

생활 속 초보 위한 ‘유코치’... “방송국 부럽지 않아요”

〈유튜브+코치〉

‘유튜버 코치’ 4인과의 대화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이 유튜브에 자신의 노하우를 담은 영상을 올리면서 유튜브로 생활 지식을 쉽게 학습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유튜브는 1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제17회 크리에이터와의 대화 ‘생활 속 전문 코치진, 유튜브 코치’ 편을 진행했다. 유코치 4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미남의 운전교실

“잘생겨서 미남이 아니라 운전엔 미친 남자라서 미남입니다. 초보운전자들을 위한 운전 관련 콘텐츠를 다루고 있습니다.”

현상철 씨는 운전학원에서 강사로 활동하다가 초보자가 시내 운전이나 주차에 어려움을 느끼는 걸 보고 영상 제작을 결심했다. 초보운전자들을 위한 영상에서 시작해 현재는 안전 운전 방법, 자동차 용품 리뷰 등도 진행하고 실제로 구독자를 만나서 무료 교육도 하고 있다.

현 씨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교육을 다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운전 교육을 할 때는 운전자가 긴장을 해서 잘 듣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며 “나중에 온라인에서 영상을 통해 보면 본인이 실전에서 당황했던 부분을 다시 복습할 수 있다”고 유튜브의 장점을 설명했다.

현 씨는 현재 운전 지식을 전수하고 있지만 자신 또한 유튜브 운영을 위한



현상철 ‘미남의 운전교실’
현장에서 긴장하는 초보 영상교육으로 실전 극복

동영상 편집 기술 등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공부하고 있다.

◆씩코치의 야구썸

“야구가 국민스포츠로 불리며 인기가 있는 데도 생활스포츠로 들어오기는 어려운 걸 보고 안타까웠다. 야구를 쉽게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내가 가장 자신 있는 야구로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다.”

윤 씨는 야구 선수로 쌓은 지식을 바탕으로 야구의 기본자세, 타법을 비롯한 야구 감성 영상을 주로 업로드하고 있다. 기본기부터 중급, 고급까지 다양한 영상을 업로드한다.

윤 씨는 “실제로 한 청소년 친구가 내 덕분에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랑 내 영상을 보고 슬



윤석 ‘씩코치의 야구썸’
야구 기본·중급·고급 담아 실력 늘었다는 후기 ‘보람’

럼프를 극복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가 뿌듯했다”고 밝혔다. 또한 윤 씨는 “씩코치가 간다”라는 코너를 통해 야구 동아리를 찾아가서 직접 소통하는 콘텐츠도 제작하고 있다.

◆정희숙의 똑똑한 정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리’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청소를 하거나 다 버린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 정리를 통해 생각과 생활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정희숙 씨는 정리의 의미나 가치를 잘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 7개월째라는 그는 “케이클부터 정규방송까지 60여 편의 방송에 출연했는데 아직도 카메라 울렁증이 있다”며 “사

정희숙 ‘정희숙의 똑똑한 정리’
단순 청소 아닌 공간활용법 정리의 의미·가치 알리고파



실 유튜브를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는데 용기를 내서 사람들에게 정리가 필요하다는 걸 알리고 싶었다”고 밝혔다.

정리 컨설턴트로 활동 중인 정 씨는 이불, 의류 등 생활용품 정리를 통해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주로 다룬다. 그는 “딸을 시집보냈는데 집이 지저분한 모습을 보고 잠이 안 왔다는 한 어머니가 딸과 함께 채널을 구독하면서 정리가 수월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보람이 느껴졌다”고 설명했다.

◆제이제이살롱드핏

“예전에는 트레이너로 수강생 한명 한명에게 시간을 들였는데, 유튜브 영상으로 가르치면서 많은 수 십만명이 직접 실행하고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는 걸 보니



박지은 ‘제이제이살롱드핏’
웨이트 입문자 심정 잘알아 공감 바탕으로 영상 만들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박지은 씨는 3년 전부터 유튜브에서 다이어트 관련 채널을 운영 중이다. 그가 말하는 성공 비법은 ‘공감’이다. 박 씨는 “내가 체육 관련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처음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과정을 통해 초보자가 어떤 게 궁금한지 잘 알게 됐고, 그걸 중심으로 영상을 만들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씨는 “많은 사람들이 몸이 좋은 사람을 보면서 ‘나는 어차피 이렇게 태어났으니까’라고 생각하는데 나 역시도 어린 시절 뚱뚱했었다”며 “일단 시작하면 건강과 함께 삶의 활력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세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사진=유튜브



지난 12일 경주엑스포 문화센터 1층에서 열린 ‘실�크로드 문화축전’에 많은 관람객이 방문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있다. /문화엑스포

막오른 ‘경주엑스포’... 가을 나들이객 북적

내달 24일까지 진행... 콘텐츠 다채

‘2019경주세계문화엑스포 스포(이하 경주엑스포)’가 가을 나들이객의 발걸음을 경주로 이끌고 있다.

경주엑스포는 ‘문화로 여는 미래의 길’을 주제로 지난 11일 개막해, 내달 24일까지 신라 역사문화와 첨단기술이 결합된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인다.

행사 첫날인 11일은 평일에도 불구하고 경주엑스포의 4대 핵심 콘텐츠를 체험하기 위한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12일은 맨발학교 회원 500여 명이 전국 최초 맨발 둘레길인 ‘비움 명살길’에 방문했다. 또 서울 대원외국어고등학교, 대구 범물중학교, 경주 계림중학교 등 다양한 지역의 학생들이 경주엑스포를 방문해 신라역사와 미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경주타워 최상층 선덕홀의 ‘신라천년, 미래천년’ 전시관에서는 컨버전스 타임트립이 구현하는 서라벌의 모습이 관람객들에게 공개됐다. 옥외 공간인

‘오아시스 정원’에는 아파트 30층 수준(82m)의 스카이워크를 경험하기 위한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천마의 궁전에서 열리는 ‘찬란한 빛의 신라’ 전시관의 반응형 미디어아트도 문전성시를 이뤘다.

매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30분 두 차례 진행되는 ‘인피니티 플라잉’ 공연은 매 시간 매진 행진을 이어갔다. 이 공연은 3D홀로그램과 로봇팔이 결합된 세계 최초 퍼포먼스다.

경주엑스포 백결공연장에서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인 ‘캄보디아 왕립무용단’과 55년 역사의 ‘베트남 호찌민 시립 봉선 민속공연단’ 등 해외 공연팀의 무대가 펼쳐졌다.

또 엑스포 문화센터 1층에서 열린 ‘실�크로드 문화축전’은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터키, 몽고,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아시아 6개국의 전통의상과 음식 등을 소개하며 실�크로드를 형성한 각국의 문화를 한자리에서 펼쳐보였다. /김민서 기자

여행비수기 11월, 호텔은 ‘즐거운 비명’

객실 예약 급증... 준성수기 수준 ‘가성비’ 높은 패키지 예약 견인

공휴일이 없어 여행 비수기로 여겨지던 11월이 도심에 위치한 호텔에게는 성수기 부럽지 않은 ‘대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짧게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도심속 휴식’이 주목 받으면서 호텔들도 가성비 좋은 상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14일 서울신라호텔에 따르면 11월 휴식 목적의 객실 예약이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11월 휴식 목적의 객실 예약은 2년 전 대비 10%, 3년 전 대비 30%까지 늘었다.

이러한 흐름은 올해 11월에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서울신라호텔의 객실 예약율은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호텔에서 바캉스 등 휴일을 보내는 ‘호캉스’ 문화가 몇 년 전부터 주목 받으면서 하나의 여가 문화로 자리잡은

점도 예약을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정 시기나 계절에 상관없이 호텔을 찾는 발걸음이 자연스러워진 것이다.

서울 도심에 위치한 호텔들의 최근 3년간 11월 객실 예약율은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높은 객실 예약율을 유지하는 호텔들도 11월 예약률이 대체로 상승하는 분위기다.

켄싱턴호텔 여의도의 경우, 최근 2017~2018년 11월 객실 예약율 90%대를 유지한 데 이어, 올해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이하 반얀트리 서울), 노보텔 엠베서더 서울 동대문 호텔&레지던스(이하 노보텔 엠베서더 동대문) 등도 비슷한 추세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11월은 전통적인 휴가 비수기로 여겨졌으나, ‘호캉스’가 일상 여가 문화로 정착하고, 11월이 가성비 좋은 시즌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고객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호텔들은 ‘가성비’ 높은 패키지 상품으로 고객의 발길을 당기고 있다.

서울신라호텔은 11월 메인 상품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객실, 로비 라운지에서의 푸짐한 디너, 와인을 포함한 ‘하트 워밍’ 패키지를 내놨다.

반얀트리 서울이 11월 1일부터 선보이는 ‘센스 오브 레주버네이션’도 가성비와 힐링에 중점을 뒀다. ▲릴렉세이션 풀이 구비된 객실 1박, ▲반얀트리 스파 트리트먼트 60분, ▲그라뎀 다이닝 라운지 조식(2인), ▲실내 수영장 및 피트니스 무료 입장으로 구성됐다.

노보텔 엠베서더 동대문은 여성들을 위한 ‘어텀 데이즈’ 패키지와 ‘걸스 나이트 아웃’ 패키지, ‘키캉스’ 패키지 등으로 가을·겨울을 겨냥하고 있다.

/김민서 기자 min0812@

편의점서도 옷 산다... 세븐일레븐 ‘경량패딩조끼’ 첫 선

패딩조끼가 편의점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업계 최초로 ‘경량패딩조끼’를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세븐일레븐 경량패딩조끼는 여성 속옷 전문기업 남영비비안과 협업해 출시한 상품으로, 높은 품질과 가성비를 자랑한다.

100% 오리털 충전제(오리깃털50%, 오리솜털50%)를 사용해 가볍고 부드러운 착용감이 좋고 보온성이 뛰어나다. 남녀공용 상품으로, 색상은 블랙과 네이비 2종이며, 사이즈는 95부터 105까지다. 세븐일레븐은 오는 16일부터 총 1만 개를 한정 판매할 계획이다. /김민서 기자

